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2 No.5 Serial No.131 2014.10. 15~30

ISSN(print) 1229-1331
http://dx.doi.org/10.7466/JKHMA.2014.32.5.15

충청북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Accredited Childcare Centers in Chungbuk Province

유재언(Jaeeon Yoo)*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child care accreditation in Chungbuk province. This study examined three questions about which factors influence the accreditation of childcare centers: 1) if they passed the accreditation criteria, 2) the total score on the accreditation criteria, and 3) the domain scores for the six domains of environment, management, process, interaction and teaching, health and nutrition, and safety. The characteristics of 1,212 childcare center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ommit management, type, specialized service, maximum capacity of children, registration ratio, target age groups of children, duration, and city size. The formal expert committee evaluated objective scores for 952 childcare centers. I derived the data for this study from the i-sarang Childcare Information Portal site (http://info.childcare.go.kr/).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binary logit model, and OLS model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the accreditation and scores by factors of childcare centers.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about 80% of the 1,212 childcare centers in Chungbuk province were accredited. Second, the accreditation of the child care center was affected by the specialized service, registration ratio, and duration. Finally, the total score of accredited childcare centers was associated with the maximum capacity of children, registration ratio, and duration. The factors of childcare centers influencing sub-area scores were different by environment, interaction and teaching, health and nutrition, and safety. The present study is important because it offers preliminary data identifying accreditation characteristics that can judge problems related to the quality of service of childcare centers and suggest childcare policy implications.

▲주제어(Key Words) : 어린이집 평가인증(childcare center accreditation), 평가인증지표(accreditation index of child care centers), 충청북도(Chungbuk province), 보육서비스 질(service quality of childcare centers)

Ⅰ. 서 론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영유아보육법」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근거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6년 도입되었다. 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2009년까지 시행되었고, 2010년부터는 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진행되었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전체 어린

• 논문 작성의 동기를 준 김하은, 김려은, 유혜원, 유혜린, 초고를 검토해주신 진미정 교수님,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Jaeeon Yoo,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222-405, Seoul National University, Daehak-dong,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8770, E-mail: jjagjjag@naver.com

이집 43,770개소 중에서 인증유지 어린이집이 32,347개소(73.9%)에 이를 정도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는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2013년 9월부터는 평가인증 여부 및 점수가 어린이집 일반사항과 함께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http://info.childcare.go.kr/)에서 공개되고 있다.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http://info.childcare.go.kr/)에 공표된 인증 점수를 보면, 2013년 12월에 평가인증을 받은 기수 평균은 93.3점이었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경우가 80%를 넘었다. 어린이집 대부분이 고득점으로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보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점수의 변별력이 약해서 어린이집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하기에 어려워 보인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평가인증은 선택사항이다.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 외부에 인증현판을 설치하고,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정부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의 자격이 되지만,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수개월 간의 준비과정은 부담이 된다(Y. Cha., H. You, & M. Kang, 2012).

2013년 보육서비스 공급 양은 영유아 인구수의 수요에 비해 적지 않고, 일부 지역은 보육서비스 정원이 영유아 인구수의 120%를 넘어 과다 공급 상태이다(E. Kim & J. Yoo, 2013). 실제로 2011년 9월 기준으로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 77%(177개)에 해당하는 기초지자체가 전체 관할구역 또는 읍면동 충원률 등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H. Lee,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 선택 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며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질 높은 어린이집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린이집 공급의 양적 확대보다 어린이집의 질을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높이고, 자유경쟁을 하여 질 낮은 어린이집은 퇴출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어린이집 인가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린이집들이 추가로 설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기존 어린이집들의 운영권은 보장되어 수요공급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는다(I. Kim, 2012).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부모들에게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평가인증 어린이집 점수가 상향평준화되어 있다면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어떤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받았고 어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는지부터 알아보겠다. 보육통계에서는 지역별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만 제공되고 어떤 특성의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받았고 평가점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연구대상을 좁혀 평가인증점수에 영향을 주는 어린이집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평가인증점수는 평가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총점부터 살펴보겠다. 평가인증 심사는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별로 이뤄지는데, 영역에 따라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특성이 있다면 총점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상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각 영역마다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총점 90점 이상 득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90점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평가인증 총점 90점 이상이, 정부로부터 보육료 외에도 추가적인 운영비를 지원받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자격조건이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점수 100점에서 35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운영비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공공형이라는 홍보효과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에는 합당한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평가인증 총점 90점이라는 현재의 기준이 과연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및 점수 결정요인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결정요인 규명을 첫 시도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진행된 시기(2006~2009년)에는 평가인증 제도의 효과성(C. Jung, O. Kim, & H. Min, 2008; H. Kim, 2008; I. Kim & S. Hong, 2008; J. Mo, 2009), 문제점과 개선방안(W. Chung, 2007; M. Ma, 2006), 평가인증 지표(D. Kang & Y. Lee, 2006; H. Kwon, 2003; S. Lee & Y. Son, 2009)에 관해서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다. 2차 이후에는 주로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의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여 경험, 어려움, 만족도, 요구도, 효과 등 주관적 인식을 설문조사 하였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의 연구지역 대부분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관해서 알려진 바가 적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편의표집으로 선정된 연구대상은 선택편의 가능성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선행연구들이 자료수집 방법으로 사용하는 어린이집 종

사자의 주관적인 자체평가 방법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관찰평가 결과와 차이가 난다(H. Soh, H. Oh, & S. Ahn, 2006).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제한점들을 보완하고자, 중소도시와 농어촌만으로 구성된 충청북도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고, 선택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북도 소재 전체 어린이집 1,212개소(2013년 12월 말 기준)를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에서 실제로 받은 영역별 점수와 총점과 일반사항 정보를 사용하였다(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 http://info.childcare.go.kr/).

이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평가인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평가인증 총점과 세부 영역인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평가인증 총점에서 90점 이상을 득점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집 특성은 무엇인가?

Ⅱ.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다(H. Kwon, 2003; D. Lee, 2005; O. Lee, 2002). 이때는 평가인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O. Lee(2002)의 연구에서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가인증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예상되는 효과성과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2003~2004년 평가인증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H. Kwon(2003)은 평가인증지표의 평가항목과 척도 구성안을 제안하였다. D. Lee(2005)는 우리나라보다 평가인증 제도가 먼저 시행되어 왔으며 선진사례로 우리나라의 평가인증지표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준 호주와 미국을 한국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006년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시작되면서 관련 연구들도 늘었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초기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하여 현재와 같이 발전하여 정착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1차가 진행된 2009년까지의 관련 연구들이 워낙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평가인증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C. Jung., O. Kim., & H. Min, 2008; H. Kim, 2008; I. Kim & S. Hong, 2008; J. Mo, 2009; S. Lee & Y. Son, 2009), 평가인증지표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W. Chung, 2007; D. Kang & Y. Lee, 2006; S. Lee, K. Lee, & S. Kim, 2007; M. Ma, 2006; H. Soh, H. Oh, & S. Ahn, 2006), 평가인증에 대한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H. Seo, 2007; M. Lee, 2007; J. W & J. Lee, 2008; S. Kim & Y. Choi, 2009; S. Hong, M. Kim, & K. Lee, 2009)로 나뉜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평가인증 제도는 보육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보육의 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측정이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보육교사들은 제도의 취지, 필요성, 효과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수개월간 평가인증을 준비해야 하는데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2010년부터는 지표를 다소 간소화 시키는 등 1차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한 평가인증 사업 2차가 진행되었다. 제도 도입기였던 1차에 비해 평가인증이 2차에서 확대 및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문제점들이 줄어들고, 같은 시기에 3~5세 누리과정 및 전체 영유아 대상 무상보육 실시와 같은 사안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인지 평가인증에 관한 연구는 줄어들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유치원 평가지표를 비교한 J. Ha(2011) 연구,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이 학부모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한 Y. Jung and K. Park(2012) 연구, 평가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H. Hwang, N. Kim, and H. Jung(2013) 연구가 일부 있으나 2010년 이후 평가인증 관련 연구들은 주로 보육교사의 경험과 인식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2010년 이후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들 수십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가인증의 경험, 어려움, 만족도, 효과, 평가, 요구에 대해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주관적 인식 수준을 설문조사(Y. Chae, 2012; Y. Chae & C Kim, 2013; M. Cho & E. Sung, 2012; J. Choi, 2012; M. Choi, Y. Jeong, & B. Lee, 2013; H. Jeong, 2014; J. Jung & E. Jung, 2012; S. Jung & S. Hong, 2013; W. Lee & L. Heo, 2013; M. Lim, 2012)하여 측정하거나 심층면접(Y. Cha, H. You, & M. Kang, 2012; K. Kim & D. Seo, 2012; M. Lee & H. Yi, 2011) 하였다. 둘째, 연구지역은 주로 수도권 및 광역시(Y. Chae, 2012; Y. Chae & C. Kim, 2013; J. Choi, 2012; M. Choi, Y. Jeong, & B. Lee, 2013; J. Jung & J. Jung, 2012; S. Jung & S. Hong, 2013; W. Lee & L. Heo, 2013)에 집중되어 있고, 전라도(H. Jeong, 2014), 경상도(Y. Cha, H. You, & M. Kang, 2012), 강원도(M. Cho & U. Sung, 2012)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있었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K. Kim & D. Seo,

2012), 법인어린이집(M. Choi, Y. Jeong, & B. Lee, 2013; H. Jeong, 2014), 민간어린이집(Y. Cha, H. You, & M. Kang, 2012), 가정어린이집(H. Jeong, 2014), 영아전담어린이집(M. Lee & H. Yi, 2011)과 같은 특정 어린이집으로 대상을 한정하거나 평가인증 어린이집 일부(Y. Chae, 2012; Y. Chae & C Kim, 2013; M. Cho & E. Sung, 2012; J. Jung & E. Jung, 2012; S. Jung & S. Hong, 2013; W. Lee & L. Heo, 2013; M. Lim, 2012)를 편의표집 하였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연구 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전라도 지역을 대상으로 H. Jeong(2014)의 연구에서는 평가인증 통과 후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에서 질적 수준이 유지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다른 유형의 보육교사들과 인식 차이가 있었다. 경상도 지역의 39인 이하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Y. Cha et al.(2012) 연구에서는 평가인증 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평가인증 참여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보육환경 개선, 교수능력 향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M. Cho and U. Sung(2012)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절반 이상이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지만, 평가인증 참여한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평가인증 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효능감과 교수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평가인증 제도를 가장 절실하게 체험하는 당사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평가인증 어린이집과 미인증 어린이집이 특성 차이가 있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에서도 어린이집 유형, 규모, 지역, 보육아동 연령구성,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몇 가지 부분이 있어 본 연구를 통해 보완해 보려 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과 본 연구를 통해 보완하려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이 평가인증 대상자인 현직 원장 및 보육교사들이라 해당 어린이집에 관하여 객관적인 실제 평가인증 점수와 달리 편향된 인식과 평가를 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주관적인 인식이 아닌 현장관찰자와 심의위원회들이 부여한 객관적인 실제 평가인증 점수로 어린이집을 비교분석 한다. 둘째, 연구지역이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전라, 경상, 강원, 충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으나 충청북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충청북도에는 대도시가 없고, 중소도시와 농어촌만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특성을 알아보는데도 적합하다. 참고로, E. Kim and J. Yoo(2013)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사회복지법인, 서울・경기는 국・공립, 제주는 법인・단체등과 같이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았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는 이와 반대로 어린이집이 한 개소도 없는 읍면동이 많았다. 그에 비해 충청북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 공급이 편중되지 않았다. 2013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를 보면, 8개 도 중에서 충청북도의 전체 어린이집수(1,212개소)는 제주도(604개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지만 전남(1,222개소) 및 강원(1,265개소)과 비슷한 수준이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78.2%)은 전북(86.7%)과 제주(8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셋째, 특정 어린이집을 편의표집하는 경우 표집 된 연구대상 특성에 선택편의 가능성이 있어 그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보장할 수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택편의가 없도록 충청북도의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원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전체 어린이집이다. 충청북도의 전체 어린이집은 2013년 12월 기준으로 1,212개소이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에서는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등에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과정, 건강・영양,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변수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여부, 어린이집 유형, 특수보육 실시여부, 정원, 충족률, 영유아 구성, 운영기간, 도시규모 정보는 보육정보공개 '어린이집 일람 현황'(2014년 1월 기준) 자료를 사용하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4(평가인증의 결과 공표)에서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점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속변수인 952개소의 어린이집별 평가인증 여부, 영역별 점수 및 총점은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http://info.childcare.go.kr/)의 '평가인증-인증점수로 찾기'(2014년 6월 기준) 자료를 이용하였다.

2. 변수 설명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분석모형은 <Table 1>과 같다.

1) 종속변수

평가인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문제 1>의 종속변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여부이며, 전체 1,21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항로짓분석을 하였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심사받은 결과가 75점 이상인 경우이다. 반면, 미인증 어린이집은 심사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애초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은 평가인증을 신청하였으나 75점 미만의 심사결과를 받은 어린이집들과 특성이 다를 수 있으나 이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불가피하게 한 집단으로 묶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http://info.childcare.go.kr/)에서는 평가인증에 신청하였으나 75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들의 평가인증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애초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은 관찰 및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평가인증 점수 자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문제 1>에서는 평가인증에서 7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으로 구분한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총점과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6개 영역의 평가인증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문제 2>의 종속변수는 각 영역별로 100점 만점이다. 총점,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경우 평가인증 어린이집 952개소만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 하였다. 운영관리의 경우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정원 39인 이하 어린이집들은 평가받지 않는 영역이라 정원 40인 이상의 평가인증 어린이집 381개소만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 하였다.

마지막 <연구문제 3>에서는 과연 평가인증 총점 90점 이상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자격이자 평가기준으로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평가인증 어린이집 952개소를 대상으로 총점 90점 이상 여부 결정요인을 이항로짓분석으로 알아보았다.

종속변수인 평가인증 여부와 점수의 평가 과정과 영역별 하위지표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선 평가 과정을 보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대상으

Table 1. Contents of Variables

Variables	Description	Analysis
Dependent		
Q1. Accredited	1=Pass, 0=Not accredited	Binary Logit
Q2. Total score	An actual score on 100 point scale	Multiple regression
Q2. Environment		
Q2. Management		
Q2. Curriculum		
Q2. Interaction & teaching		
Q2. Health & nutrition		
Q2. Safety		
Q3. 90 and over	1=90 and over, 0=Below 90	Binary logit
Independent		
Commit management	1=Commissioned, 0=Direct management	Multiple regression Binary logit
Type	Categorical: Home / public / private / others	
Specialized service	1=Specialized service, 0=basic service	
Maximum capacity of children	1=40 and over, 0=Below 40	
Registration ratio(%)	Present number of children/Maximum number of children×100	
Target age groups of children	1=Only aged O to 2, 0=included aged 3 to 7	
Duration (year)	0 to 25	
City size	1=Rural, 0=Medium & small sized city	

Table 2. Accreditation Index of Childcare Centers

Category	Sub-category	The number of indicators		
		Large centers[1]	Small centers[2]	With disabilities
Environment (& management)	Facility condition	3	3	4
	Activity material	5	-	7
	Operational support	3	-	3
	(Management)	-	(3)	-
	(Employee)	-	(3)	-
	(Cooperation with family)	-	(2)	-
Management	Management	3	-	4
	Employee	3	-	3
	Cooperation with family	4	-	4
	Cooperation with community	2	-	2
Curriculum	Construction of plan	7	4	7
	Child care (& material)	7	(7)	8
Interaction & teaching	Daily nurture	3	3	3
	Interaction of teacher	6	6	6
	Teaching	2	2	1
Health & nutrition	Sanitary	8	8	8
	Safety protection	5	-	-
	Disease management	-	2	3
	Meal & snack	-	2	2
Safety	Facility Safety	5	5	5
	Disease management	2	-	-
	Meal & snack	2	-	-
	Safety protection (disabilities)	-	5	(5)
The number of total indicators		70	55	75

Note; 1) The capacity of large centers is 40 and over children. 2) The capacity of small centers is 40 below children.
Source: http://www.childcare.go.kr/

로 하며 신청,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집 측이 평가인증 신청을 하면 1단계로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시・군・구으로부터 참여대상 확정을 받고, 2단계로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관찰자를 파견하여 현장관찰을 실시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평가인증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증을 결정한다. 총점 및 영역별 기준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면 인증 결과를 받고, 인증 결과는 3년간 유지된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평가인증지표는 어린이집규모와 유형에 따라 40인 이상 어린이집용, 39인 이하 어린이집용,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의 세 종류가 있다. 40인 이상 어린이집용은 6개 영역 70항목, 39인 이하 어린이집용은 5개 영역 55항목,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용은 6개 영역 75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각 항목을 1점(미흡한 수준), 2점(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3점(우수한 수준)의 척도로 평가한다. 유형별 평가인증지표의 영역과 항목은 <Table 2>와 같다.

40인 이상 어린이집과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지표의 영역이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가 1개 영역으로 통합되어 있어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규모와 유형에 따라 영역과 항목 수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하위영역은 거의 유사하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위탁운영 여부, 어린이집 유형, 특수보육 실시여부, 정원, 충족률, 영유아 구성, 운영기간, 도시규모이다. 위탁운영 여부는 위탁운영인 경우 1, 직영인 경우 0으로 입력하였다. 어린이집 유형은 가정, 국공립, 민간, 기타로 구분하였고, 가정이 대표집단인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어린이집 유형의 기타에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이 해당된다. 특수보육 실시여부는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방과후전담, 방과후통합, 시간연장형, 휴일보육, 24시간 중 1개 이상의 특수보육을 실시하면 1, 전혀 실시하지 않으면 0으로 입력하였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40인 이상, 39인 이하 어린이집과는 상이한 평가인증지표로 평가인증을 받는데 충청북도에는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 7개소에 불과해 별도의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정원은 40인 이상을 1, 39인 이하를 0으로 구분하였다. 충족률은 이용률, 충원율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정원에서 차지하는 현원의 비율(%)로 최소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가진다. 영유아 구성은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연령이 0~2세만 있는 경우를 1, 3~7세도 있는 경우를 0으로 구분하였다. 운영기간은 2014년 개원한 경우 0부터 25년 이상(1989년 이전)까지 일 년 단위 연속변수로 구분하였다. 도시규모는 농어촌인 경우 1, 중소도시인 경우 0으로 구분하였다.

3. 연구대상 어린이집의 일반사항

본격적으로 연구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연구대상인 충청북도 소재 어린이집 1,212개소의 일반적인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다. 2013년 12월 말 기준, 충청북도 전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및 일반특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Centers in Chungbuk Province

Variables	Freq. (%)	Variables	Freq. (%)
Accredited	1,212 (100.0)	Type	1,212 (100.0)
Pass	952 (78.5)	Home	550 (45.4)
90 and over	813 (85.4)	Public	56 (4.6)
Below 90	139 (14.6)	Private	435 (35.9)
Not accredited	260 (21.5)	Others	171 (14.1)
Commit management	1,212 (100.0)	Specialized service	1,212 (100.0)
Commissioned	42 (3.5)	Specialized service	343 (28.3)
Direct management	1,170 (96.5)	Basic service	869 (71.7)
Target age groups	1,212 (100.0)	City size	1,212 (100.0)
Only aged 0 to 2	552 (45.5)	Medium & small city	790 (65.2)
Included aged 3 to 7	660 (54.5)	Rural	422 (34.8)
Maximum capacity	1,212 (100.0)		
40 and over	470 (38.8)		
Below 40	742 (61.2)		

Variables	Freq.	Mean	S.D.	Min.	Max.
Total score	952	93.90	3.84	75.93	99.94
Environment	952	96.12	4.16	77.67	100.00
Management	381	93.24	5.10	75.67	100.00
Curriculum	952	96.00	4.69	75.67	100.00
Interaction & teaching	952	94.66	4.14	78.00	100.00
Health & nutrition	952	93.55	5.01	75.67	100.00
Safety	952	91.06	6.34	75.00	100.00
Registration ratio (%)	952	84.84	18.95	0	100.00
Duration (year)	952	10.00	6.21	0	25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비중은 4/5정도였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85%는 평가인증총점 90점 이상을 받았다. 평가인증 총점은 평균 93.9점이었고, 영역별로는 보육환경 96.12점, 보육과정 96.00점, 상호작용과 교수법 94.66점, 건강과 영양 93.55점, 운영관리 93.24점, 안전 91.08점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30%에 조금 못 미쳤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절반 가까이가 가정어린이집이었고, 민간어린이집 36%였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5%정도에 불과했고, 그 밖의 어린이집 유형이 14%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약 4%만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은 직영이었다. 0~2세 연령의 아동만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46% 정도였고,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3~7세 연령의 아동들도 보육하고 있었다. 도시규모는 중소도시가 농어촌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았다. 정원은 40인 이상인 경우가 약 40%였고, 충족률은 평균 85%였다. 운영기간은 평균 10년으로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1. 평가인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문제 1>을 풀기 위해 평가인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이항로짓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항로짓분석 결과는 해석이 용이한 승산비(odds ratio)로 제시하였다.

이항로짓분석 결과, 평가인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특수보육 실시여부, 충족률, 운영기간이었다.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미실시 어린이집에 비해 평가인증을 받을 승산이 101% 높았다($p < .001$). 충족률이 1% 올라갈수록 평가인증 받을 승산도 4%씩 높아졌다($p < .001$). 운영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평가인증 받을 승산도 5%씩 올라갔다($p < .01$). 그밖에 위탁운영, 어린이집 유형, 정원, 영유아 구성, 도시규모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11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Table 4. Binary Logit Result of Characteristics on Accreditation

Variables	Accreditation	
	Odds Ratio	Robust S.E
Commissioned (ref: Direct management)	1.81	.95
Tpye (ref: Home)		
Public	.72	.31
Private	.78	.16
Others	1.37	.39
Specialized service (ref: Basic service)	2.01***	.39
Maximum capacity (ref: Below 40)		
40 and over	1.62	.44
Registration ratio	1.04***	.00
Target age groups (ref: Included aged 3 to 7)		
Only aged 0 to 2	.74	.21
Duration	1.05**	.02
Rural (ref: Medium & small sized city)	1.14	.20
Constant	.10***	.04
n	1,212	
Wald χ^2	124.39***	
Pseudo R^2	.11	

**$p < .01$, ***$p < .001$

2. 평가인증 총점 및 영역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이번에는 <연구문제 2>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952개소만을 대상으로 하여 100점 기준의 평가인증 총점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찾아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평가인증 총점에 영향을 주는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정원, 충족률, 운영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다. 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39명 이하 어린이집에 비해 총점이 0.95점 낮았다($p < .05$). 어린이집 충족률이 1% 높을수록 총점도 .02점씩 높았다($p < .05$). 운영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총점은 0.06점씩 낮아졌다($p < .01$). 그밖에 위탁운영 여부, 어린이집 유형, 특수보육 실시여부, 영유아 구성, 도시규모에 따라서는 총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05로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6.41$, $p < .001$).

평가인증 총점에 이어서, 이번에는 평가인증 각 영역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중다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 <Table 7>과 같다.

<Table 6>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보육환경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원, 충족률이었다. 정원이 40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39인 이하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환경 점수가 2.77점 높았다($p < .001$). 충족률이 1% 올라갈수록 보육환경 점수도 .02점 높아졌다($p < .05$). 그밖에 위탁운영 여부, 어린이집 유형, 특수보육 실시여부, 영유아 구성, 운영기간, 도시규모에 따라서는 보육환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육환경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은 .13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4.85$, $p < .001$).

운영관리의 경우 영유아 구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나($p < .05$), 중다회귀분석 모형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 1.30$). 마지막으로 보육과정은 상수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가 없었고, 중다회귀분석 모형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 .57$).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다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우선, 상호작용과 교수법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원, 영유아 구성, 운영기간이었다. 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 39명 이하인 어린이집에 비해 상호작용과 교수법 점수가 1.48점 낮았다($p < .001$). 0~2세 영유아만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7세도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상호작용과 교수법 점수가 1.23점 낮았다($p < .01$). 운영기간이 1년 늘어날수록 상호작용과 교수법 점수는 .08점 낮아졌다($p < .01$). 이 외에 위탁운영 여부, 어린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d Binary Logit Result of Characteristics on Total score

Variables	Total score	
	B	S.E.
Commissioned (ref: Direct management)	2.11	.66
Tpye (ref: Home)		
Public	.35	.63
Private	-.30	.31
Others	-.40	.40
Specialized service (ref: Basic service)	-.40	.27
Maximum capacity (ref: Below 40)		
40 and over	-.95*	.44
Registration ratio	.02*	.00
Target age groups (ref: Included aged 3 to 7)		
Only aged 0 to 2	.19	.45
Duration	-.06**	.02
Rural (ref: Medium & small sized city)	.04	.28
Constant	93.17***	.83
n	952	
F	6.41***	
Adj.R^2	.05	

*$p < .05$, **$p < .01$, ***$p < .001$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Characteristics on Environment, Management, and Curriculum

Variables	Environment		Management		Curriculum	
	B	S.E	B	S.E	B	S.E
Commissioned (ref: Direct management)	.21	.69	1.50	1.03	.72	.84
Tpye (ref: Home)						
Public	-.30	.66	-.17	1.25	.77	.80
Private	-.22	.33	-.03	.78	-.15	.40
Others	.03	.42	-.00	.85	-.05	.51
Specialized service (ref: Basic service)	-.16	.28	.46	.57	-.15	.34
Maximum capacity (ref: Below 40)						
40 and over	2.77***	.46	-3.98	2.31	-.26	.56
Registration ratio	.02*	.01	.01	.02	-.01	.01
Target age groups (ref: Included aged 3-7)						
Only aged 0 to 2	.43	.47	2.79*	1.38	-.32	.57
Duration	.00	.02	.05	.04	.01	.03
Rural (ref: Medium & small sized city)	.45	.29	-.37	.55	.32	.35
Constant	93.26***	.86	93.16***	3.01	96.60***	1.04
n	952		381		952	
F	14.85***		1.30		.57	
Adj.R^2	.13		.01		-.00	

*p < .05, ***p < .001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of Characteristics on Interaction & Teaching, Health & Nutrition, and Safety

Variables	Interaction & teaching		Health & nutrition		Safety	
	B	S.E.	B	S.E.	B	S.E.
Commissioned (ref: Direct management)	.83	.68	1.80*	.88	2.63*	1.04
Tpye (ref: Home)						
Public	.38	.66	.20	.85	.71	.99
Private	-.18	.33	-.34	.42	-.30	.49
Others	.09	.41	-.22	.53	-1.60*	.63
Specialized service (ref: Basic service)	.14	.27	-.54*	.35	-.85*	.41
Maximum capacity (ref: Below 40)						
40 and over	-1.48***	.45	-1.26***	.59	-2.88***	.69
Registration ratio	.00	.01	.03**	.01	.02	.01
Target age groups (ref: Included aged 3-7)						
Only aged 0 to 2	-1.23**	.47	1.78**	.60	-.30	.70
Duration	-.08**	.02	-.07	.03	-.13**	.04
Rural (ref: Medium & small sized city)	-.07	.28	.35	.37	-.87*	.43
Constant	96.23***	.85	91.37***	1.10	92.31***	1.29
n	952		952		952	
F	16.64***		3.30***		18.87***	
Adj.R^2	.14		.02		.16	

*p < .05, **p < .01, ***p < .001

이집 유형, 특수보육 실시여부, 충족률, 도시규모는 상호작용과 교수법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은 .14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16.64, p < .001).

두 번째로, 건강과 영양 점수에는 위탁운영 여부, 특수보육 실시여부, 정원, 충족률, 영유아 구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직영하는 경우에 비해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의 건강과 영양 점수가 1.80점 높았다(p<.05).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미실시 어린이집에 비해 건강과 영양 점수가 .54점 낮았다(p < .01). 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 39명 이하 어린이집에 비해 건강과 영양 점수가 1.26점 낮았다(p < .001). 어린이집의 충족률이 1% 높을수록 건강과 영양 점수도 .03점씩 높았다(p < .01). 0~2세만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3~7세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1.78점 높았다(p < .01). 그밖에 어린이집 유형, 운영기간, 도시규모에 따라서는 건강과 영양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02로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3.30, p < .001).

마지막으로, 안전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위탁운영 여부, 어린이집 유형, 특수보육 실시여부, 정원, 충족률, 운영기간, 도시규모였다. 위탁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은 직영하는 경우에 비해 건강과 영양 점수가 2.63점 높았다 (p < .05). 어린이집 유형이 기타인 경우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안전 점수가 1.60점 낮았다(p < .01).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미실시 어린이집에 비해 안전 점수가 .85점 낮았다(p < .05). 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39명 이하인 어린이집보다 안전 점수가 2.88점 낮았다(p < .001). 운영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안전 점수는 .13점 낮아졌다(p < .01). 도시규모는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인 경우 안전 점수가 .87점 낮았다(p < 05). 그밖에 충족률, 영유아 구성에 따라서는 안전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16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18.87, p < .001).

3. 평가인증 총점 90점 이상 득점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마지막 <연구문제 3>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 952개소만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총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평가인증 총점은 <Table 8>과 총점 90점 이상 대 90점 미만 두 집단으로 구분한 이항로짓분석을 하

Table 8. Binary Logit Result of Characteristics on 90 and Over Total Score

Variables	90 and over	
	Odds Ratio	Robust S.E.
Commissioned (ref: Direct management)	7.40	7.70
Tpye (ref: Home)		
Public	1.11	.59
Private	1.03	.25
Others	1.05	.30
Specialized service (ref: Basic service)	1.06	.22
Maximum capacity (ref: Below 40)		
40 and over	.56	.19
Registration ratio	1.01*	.01
Target age groups (ref: Included aged 3 to 7)		
Only aged 0 to 2	1.34	.47
Duration	.99	.02
Rural (ref: Medium & small sized city)	.92	.18
Constant	2.38	1.39
n	952	
Wald χ^2	21.56*	
Pseudo R^2	.03	

*p < .05

였다.

평가인증 90점 이상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 이항로짓분석 결과를 보면, 충족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다. 충족률이 1% 높아질수록 총점이 90점 이상일 승산도 1%씩 높아졌다($p < .05$). 이외의 변수들에 따라서는 총점 90점 이상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형의 설명력은 .03으로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하였다($p < .05$).

Ⅴ. 논의 및 결론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보육의 질을 관리하고,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 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충청북도 전체 어린이집의 78.5%가 평가인증을 받았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에서 85.4%가 총점 90점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자리를 잡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인증 어린이집 간에 점수 차이가 근소하다는 점은 어린이집 선택 시 합리적 정보 제공이라는 두 번째 목표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총점 평균이 93점 이상이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지원 자격조건인 90점 이상이라는 기준도 어린이집 대부분이 충족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다. 만약 이대로 90점 이상이라는 공공형 어린이집 자격조건을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충족하고 있어 변별력이 적은데도, 이를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그 운영비를 지원받고 홍보효과를 누린다면 시장왜곡 발생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들의 특성과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평가인증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어떤 특성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이항로짓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특수보육을 실시하고, 충족률이 높으며, 개원한지 오래된 어린이집일수록 평가인증을 받았다. 단,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때 미인증 어린이집 중에 평가인증 심사에서 75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들과 애초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이 섞여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에서 어떤 특성의 어린이집이 영역별 총점 및 점수가 높은지 분석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운영 하는 어린이집은 직영에 비해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이 우수했다. 둘째, 어린이집 유형은 가정어린이집이 기타인 경우에 비해 안전 영역만 우수할 뿐, 나머지 영역과 총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특수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비해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에서 우수하였다. 넷째, 정원이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 39명 이하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환경 점수가 높았다. 반면, 총점, 상호작용과 교수법,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에서는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 39명 이하 어린이집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다섯째, 충족률이 높을수록 건강과 영양, 총점도 높았다. 여섯째, 0~2세 영아만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7세 유아도 보육하는 어린이집보다 건강과 영양 점수가 높지만, 상호작용과 교수법 점수는 낮았다. 일곱째, 개원한 지 오래된 어린이집일수록 총점, 상호작용과 교수법, 안전 영역 점수가 낮았다. 여덟 번째로, 농어촌에 있는 어린이집이 중소도시 소재 어린이집에 비해 안전 영역의 점수가 낮았다.

평가인증 총점과 영역별 점수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모든 영역에서 평균점수는 지나치게 높고, 편차는 매우 적다는 점이다. 중다회귀분석에서 상수가 91~96점 이상이라는 것은 곧, 모든 영역에서 90점 이상을 기본점수로 갖는다는 말이다. 그에 비해 본 연구의 중다회귀분석 모형에 포함된 위탁운영 여부, 어린이집 유형, 특수보육 실시여부, 정원, 충족률, 영유아 구성, 운영기간, 도시규모의 어린이집 일반특성에 따른 점수 차이는 미미하다. 이는 영역별 점수의 표준편차가 4~5점 정도에 불과하여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약 68%가 88점~100점에 몰려있다는 기초통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총점과 영역별 점수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안전 영역에서 가정어린이집이 기타어린이집에 비해 1.6점 높을 뿐 그 외의 영역과 총점에서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만족도에도 차이를 나타냈고, 학부모들 역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보고하였다 (M. Lee et al., 2012; M. Seo et al,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는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순이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오히려 가정어린이집이 높거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없어 두 연구의 결과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4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39명 이하의 어린이집에 비해 총점, 상호작용과 교수법,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를 통해 정원 39인 이하 어린이집 대상 평가인증 지표가 40인 이상의 어린이집 대상 평가인증 지표보다 점수 획득이 용이하도록 설계

된 것은 아닌지 추측해본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달랐지만 본 연구에서 차이가 없었던 이유가 보육실태조사와 달리 평가인증 점수는 전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인지, 평가인증 점수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이지, 어린이집 유형에 무관하게 보육의 질이 평준화되었기 때문인지는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영아만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유아도 보육하는 어린이집보다 건강과 영양 점수가 높은 반면, 상호작용과 교수법 점수가 낮다는 결과도 흥미롭다. 즉, 주로 영아만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은 건강과 영양 면에서 유아도 함께 보육하는 어린이집들에 비해 우수하지만, 상호작용과 교수법 측면에서 품질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만 2세 영아시기에는 집 근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자녀가 만 3~4세 유아기에 들어서면 규모가 더 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옮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유아기가 되면 상호작용과 교수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어떤 특성의 어린이집이 총점 90점 이상을 받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충족률만 유의미한 변수였고, 그 밖의 특성들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 모형의 설명력도 매우 낮았다. 그런데 어린이집 유형, 특수보육실시여부, 정원, 영유아 구성, 운영기간, 도시규모가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공급자 측면의 특성들이라고 한다면, 충족률은 이미 수요자들의 평가와 만족도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수요자들의 선호가 반영된 충족률을 제외하면 평가인증 총점 90점 이상 어린이집들과 90점 미만의 어린이집들 사이에 공급자 측면의 객관적인 특성들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만 본다면, 평가인증 총점 90점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기준 조건으로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총점을 구성하는 6개 영역 중에서 운영관리, 보육과정 2개 영역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 중다회귀분석 모형은 유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포함된 특성들 외에도 총점 90점 이상 여부, 운영관리, 보육과정의 영역별 점수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검증도 요구되지만, 이와 더불어 이 영역들의 평가인증 점수 측정이 과연 변별력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변별력을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평가인증 총점 평균을 낮추거나 점수의 편차를 늘려 변별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55~75개 각 항목을 1점, 2점, 3점의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균 93점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3점을 받아야 가능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총점은 정원과 충족률에 따라서만 차이가 났고, 운영관리, 보육과정 영역 점수는 어린이집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많은 항목으로 어린이집 측에 부담만 주고 결과적으로 모두 동일한 3점을 받는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평가인증 비율이 너무 높아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어린이집 측과 학부모 모두에게 평가인증 효과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평가인증 평균 점수를 낮춰 평가인증율도 낮추거나, 척도를 0.5점 간격으로 조정해 어린이집 간 점수 편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보육과정 영역은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평가 점수도 편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평가인증 영역에서 축소 또는 제외를 고려할 수도 있다.

둘째, 현재는 39인 이하 어린이집과 40인 이상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평가지표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39인 이하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사용한 경우 40인 이상 어린이집 평가지표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총점 결과가 더 높게 측정되고 있어 지표 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미인증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신청을 애초에 하지 않은 것인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였으나 75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미인증 어린이집으로 남은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정보가 추가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미인증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관련 이력과 미인증 사유가 표기되지 않는다면, 미인증 어린이집 측에서는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가진 어린이집만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I. Kim, 2012; H, Lee, 2013).

넷째, 전체 어린이집의 1/5 정도 남아있는 미인증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평가인증 준비가 부담되는 만큼 고득점에 대한 동기도 부여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3만 개소가 넘는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받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인센티브로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교재・교구비, 기능보강비, 급식 구입 등에 대한 면세 및 세금환급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거나, 평가인증 점수에 따라 인건비, 특별근무수당, 차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신청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여 모든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평가인증 점수의 분산이 작은 이유도 있지만 평가인증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 분석하여 모형의 설명력이 높지 않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특성들 외에도 방과후 및 특별활동, 교사의 질, 접근성, 차량 운행과 같은 공급자 측면의 객관적인 특성에 따라 총점 90점 이상 여부, 운영관리, 보육과정의 영역별 점수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평가인증 제도를 애초에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들과 평가인증을 신청하였으나 75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미인증으로 남아있는 어린이집을 구분할 정보가 없어 한 집단에 넣었다. 하지만 이 중에는 품질이 우수하지만, 번거롭기만 한 평가인증 참여에 동기 부여가 적어 미인증으로 남아있는 어린이집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미인증 어린이집들이 어떤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대상이 중소도시와 농어촌만 있는 충청북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되어 있어, 분석 결과가 서울 및 광역시의 대도시나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추후 대도시 또는 전국으로 연구대상을 넓힌 연구가 진행되어 본 연구결과가 검증되길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의 일종인 어린이집정보공시포털 자료를 활용하여 충청북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제 평가인증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을 첫 시도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부모들에게 합리적인 정보 제공의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언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앞으로 시행될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는 현재의 문제점이 보완되어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정의 부모 모두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유용한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

REFERENCES

Chae, Y., & Kim, C. (2013). Analysis of change in the perception and need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bout service quality with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31*(4), 313-346.

Chae, Y. (2012). Childcare teachers' different expectation levels and performance levels of service quality after childcare center accreditation.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30*(4), 1-31.

Cha, Y., You, H., & Kang, M. (2012). Experience of child-care teachers during the participation of child-care center's accreditation system: focused on a private child-care center in Gyeong Nam.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2*(6), 83-109.

Cho, M., & Sung, U. (2012). The job satisfaction and teaching efficacy of the teachers and teacher' recognition of accreditation system by participation in accreditation of child care center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2*(2), 101-119.

Choi, J. (2012). Nursery facilities employees' perceptions of re-certification and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2*(1), 19-57.

Choi, M., Jeong, Y., & Lee, B. (2013). The practicians' recognition of re-accreditation for incorporated childcare facility.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5*, 117-134.

Chung, W. (2007). The problem point and improvement plan in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system.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1*, 45-64.

Ha, J. (2011). A comparative study of the criteria for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and kindergarten evaluation. *The Journal of Transformatio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5*(1), 49-72.

Hong, S., Kim, M., & Lee, K. (2009). Recognition of the accreditation standards of employer-supported child care staff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4), 433-456.

Hwang, H., Kim, N., & Jung, H. (2013). Status, issues, and improvement of Korean childcare accreditation.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9*(6), 461-490.

i-sarang childcare portal site. (2014). Information of childcare centers. Retrieved from http://info.childcare.go.kr/

Jeong, H. (2014). Teachers' perception of the maintenance after accredited on the second Korean accreditation index of child care centers: by the health & nutrition and safet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2), 261-278.

Jung, C., Kim, O., & Min, H. (2008). A study of effect of the evaluative accreditation system of daycare center.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7*(1), 269-279.

Jung, E., & Jung, J. (2012). An analysis on the status and childcare teachers' awareness of childcare center accreditation system.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acation, 30*(1), 67-94.

Jung, S., & Hong, S. (2013). Childcare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 of accreditation procedures index of childcare cent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5*, 65-91.

Jung, Y., Park, K. (2012). Research on the influences of care service quality on parents' royalty in child day-care cent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2*, 231-262.

Kang, D., & Lee, Y. (2006). Analysis of the problems with the evaluation certification index for child care centers. *Journal of Future Childhood Education, 13*(4), 185-216.

Kim, E., & Yoo, J. (2013). *Analysis on the supply and demand of childcare and policy implications* (2013-31-04).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m, I. (2012). The goal and design of child care policy (2012-05).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im, I., & Hong, S. (2008). The mother's satisfaction of child-care service by having appraisal authentication. *Journal of Living Science Research, 34,* 187-211.

Kim, H. (2008). Effects of the child accreditation system: successful experiences of participants.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29*(1), 169-188.

Kim, K., & Seo, D. (2012). A study on the care center accreditation system perceived by the directors and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in the 1st and 2nd accreditation. *Journal of Childcare Research, 8*(2), 23-44.

Kim, S., & Choi, Y. (2009). A study on the chief and teachers' recognition of child care accreditation system: successful experiences of participa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8*(2), 65-78.

Kwon, H. (2003). Recommendation for developing of accreditation criteria for improving child care quality.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3*, 93-112.

Lee, D. (2005). A comparative analysis of evaluation systems in child care service.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9*(2), 125-150.

Lee, H. (2013).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hild care policy in Korea. Seoul: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Lee, M. (2007). A research for teachers and owner's recognition of appraisal accreditation against childcare institu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46*(1), 147-167.

Lee, M., Seo, M., Lee, J., Lee, J., Do, N., Kwon, M., Yang, M., Son, C., Kim, K. (2012). *National survey on child care service -child care center-* (11-13520000-000962-12).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Lee, M., Yi, H. (2011). An inquiry into the difficulties and needs of child care providers' during the process of accreditation criteria for infant-toddler child care centers.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10*(3), 95-117.

Lee, O.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accreditation of child care centers and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s. *Duksung Journal of Social Sciences, 8*, 213-229.

Lee, S., & Son, Y. (2009). Meta analysis of the studies on the index of child care center accredit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13*(4), 247-266.

Lee, S., Lee, K., & Kim, S. (2007). Comparative study on index of accreditation of child care center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Korean Journal of the Japan Education, 12*(1), 35-55.

Lee, W., & Heo, L. (2013). Caregivers' accreditation experience and their motivational self-concep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1), 49-59.

Lim, M. (2012). Examination of the postscript of the day care center passed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Journal of School Education, 7*(2), 77-93.

Ma, M. (2006). A qualitative approach for preparation process of estimative validation of successful childcare facilitie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3*(3), 111-135.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Workbook of childcare service in 2014* (11-1352000-000191-10). Sejong, Korea: Author.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3). Statistics *of childcare service in 2013* (11-1352000-000028-10). Sejong, Korea: Author.

Mo, J. (2009). Effectiveness model of childcare accredi-

tation through data mining.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 91-115.

Seo, H. (2007). A study on child care center teachers' experiences in preparatory courses for the evaluative accreditation system for child care center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0*, 1-29.

Seo, M., Yang, M., Kim, E., Choi, Y., You, H., Son, C., Lee, H. (2012). *National survey on child care service -household of young children-* (11-13520000-000961-12).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Suh, H., Oh, H., & Ahn, S. (2006). Difference between self-evaluation and professional evaluation in child care centers with less than 21 children. *Korean J. of Child Studies, 27*(4), 185-200.

Won, J., & Lee, J. (2008). Teachers' sense of efficacy, perceptions, and experiences in the process of childcare accreditatio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7*(4), 213-224.

□ 접 수 일 : 2014년 06월 23일
□ 심 사 일 : 2014년 08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14일